

“국보위 참여·오월정신 부정·막말...부끄럽고 죄송하다”

김종인 위원장 사과 발언 내용과 배경

“너무 늦게 찾아와...제 미약한 발걸음 역사의 매듭 푸는 계기 되길”
호남 겨안기 의지 반영...“5·18 망언 의원 제명부터...” 목소리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했다. 보수 정당 대표가 직접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 최근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호남 끌어안기' 전략에 '췌기'를 박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에도 풀이된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 외에는 호남의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등이 없었고, 그동안 당내에서 5·18 관련 망언을 했던 전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5·18 관련 법안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진정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사과문 무엇을 담았나=김 위원장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광주를 향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에 참여한 자기반성으로 광주에 대한 사과를 시작했다. 그는 “나는 신군부 집권을 위해 만든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 그리고 군사정권에 반대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번 이에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 일부 정치인들이 5월 정신을 부정하고 그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행동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참회와 반성이 오늘날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너무 늦게 찾아왔다. 작은 결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 결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빌리 브란트(전 독일 총리)의 충고를 기억한다. 제 미약한 발걸음이 역사의 매듭을 풀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과 배경은=김 위원장의 이날 5·18 영령에 대한 '무릎 사과'와 광주를 향한 사과문 발표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보수 정당도 호남을 반드시 껴안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비대위원들에게 “우리가 호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에서 외면하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차기 집권을 위해서는 호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견인

해 온 광주-전남지역민에게 있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광주 방문 일정의 대부분을 5·18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에 당 차원의 봉사활동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호남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김 위원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광주를 방문, '무릎 사과'에 이어 광주를 향한 '사과문' 발표까지 한 것은 '호남 공세'에 박차를 가해 호남 민심을 적극 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종인 위원장 사과 했지만 '호남 겨안기' 구체적 메시지 없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9일 광주를 찾아 '무릎 사과'와 함께 눈물 어린 사죄를 했지만, 향후 통합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호남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에 호남의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도 '호남 겨안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우선 김 위원장은 당내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왜곡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도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당내에서 벌어져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 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

로 읽힌다.

그러나 5·18 관련 망언을 했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 의원들에 대한 제명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5·18 망언을 한 분들은 이미 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는 이전에 이뤄진 징계 결정에 대해 다른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당이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 위원장이 과도체제인 비대위의 대표라는 점에서 향후 전당대회를 거쳐 들어설 당 대표 등 공식 지도부가 이를 실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 역사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묻는 질문에는 “입법이라는 것이 국회 내에서 양당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이날 호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실망감을 더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호남 민심 공략 복안”과 관련해 “지금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면서 차기 대선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는 추후 제시할 것이다. 다음 대선을 맞이해 확실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이 차기 대선을 위한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로 보이는 대목이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 5·18특별법 등 4대 현안 협조 당부

광주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5·18역사왜곡특별법 특별법 제정 등 지역 4대 현안을 건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

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신속 발의 및 의결 ▲국방부 주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유지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5년 연장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 특화산업 법인세 감면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건

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광주 인공지능(AI) 중심도시와 광주형일자리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물어봤을 뿐 광주시가 건의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건강보험, 더 큰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www.nhis.or.kr

언택트 시대 각광받는 별 헤는 낭만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5) 캠핑

코로나 19가 여름휴가 풍경도 바꾸어 놓은 것 같다. 인파가 바글바글한 유명 해수욕장이나 명소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러운 숲속 계곡이나 조그만 바닷가에서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도 이번 휴가로 캠핑이나 글램핑을 다녀왔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실제 전남 지역에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이 많아졌다. 최근 캠핑이 우리 시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한 것이다.

캠핑 좀 다녀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캠핑 낭만의 끝판왕은 모닥불로 모기 쫓고 장작불에 바베류 후 밤바다에 쏟아지는 별 이야기다. 집 놔두고 여러 수고를 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달갑지 않아 떠나보지 못했지만 요즘 대세라는 캠핑을 1박2일이라도 다녀와야 할까보다.

그림 그리기는 여행자로 알려진 작가 전영근(1970~)의 '여행' (2011년 작)은 캠핑을 위해 온갖 짐과 장비, 먹을 것과 책 등을 바리바리 싣고 길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겨운 작품이다.

화면 속 작은 자동차는 요란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없는 담요, 낚싯대, 우산, 옷가지, 책, 수박과 복숭아 등이 섞여 여단가를 향해 떠나려는 설렘이 가득 담겨있는 듯하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 길을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자동차 뒤장에 어른거린다.

여행길 풍경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인간적이면서도 따뜻하게 그려오고 있는 작가는 특히 '여행' '행복한 여행' '아주 특별한 여행' '여행자' 등 개인전을 통해 일탈을 꿈꾸면서도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잠시 여유와 행복에 젖는 시간을 갖게 한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